

#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의 건축 특성과 의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Wolfsburg Cultural Center

Author 정태용 Chung, Tae-yong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부교수, 공학박사

Abstract In Alvar Aalto's designs, important factors of complex building designs including Wolfsburg cultural center are that they insinuate how to develop each architectural type and how to combine them in a building. The humane and physical background studies, and wholistic and systematic approaches are adopted to fulfill research purposes. Comparison with other buildings are necessary to reveal true meaning of this building. The result of analysis show characteristics of Wolfsburg cultural center as follows: hybrid composition of mass and elevation, spatial effect using level difference and light, massing variation of roof, and creating space for various activities. Wolfsburg cultural center designed in late 1950s has greatly affected Aalto's later works through various architectural experiments because it is the first cultural complex project that combined various architectural types. Especially library in the cultural center has shown transitional characteristics to famous fan-type libraries of 1960s while maintained features about Viipuri library. Wolfsburg cultural center act as an another type which present new principles of clustering, massing and exterior design. Its true meaning lies in forming a humanizing place beyond spatial configuration.

Keywords 알바 알토, 복합 프로그램, 전환기적 성격  
Alvar Aalto, Complex Program, Transitional Characteristics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독일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는 핀란드의 근대 건축가인 알바 알토의 1950년대 말 작품으로서, 핀란드 이외의 지역에 만들어진 본격적인 복합문화시설이란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알토의 전체 건축 작업에 있어서 연결고리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알토 건축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자료 정리의 성격이 강한 쉴트(1967), 플라이(1971)를 기점으로 알토 건축의 기원에 주목한 포피리오스(1982)를 지나, 쿤트릴(1983), 두아니(1986), 웨스톤(1997) 그리고 최근의 레이(2005) 로프턴 3세(2005) 펠코넨(2009)<sup>1)</sup>의 작업으로 이어진다. 그러

나 이들의 작업은 주제 및 분석의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대상을 비푸리 도서관, 마이레아 주택, 이마트라 교회, 핀란드아 홀 등 알토의 유명 작업에 집중하고 있고 이외의 작업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와 같은 알토의 복합 프로그램의 건축이 흥미로운 이유는 50년대 말 활발한 작품 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에 '단일 건물 유형들을 각각 어떻게 전개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합할 것인가'라는 2가지 건축적 고민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의 분석은 개별 건축유형의 전환기적 성격과 복수 유형의 조합에 대한 알토의 초기 해결책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항을 배경으로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의 건축적 성격 파악을 연구의 기본 목적으로 삼는다. 또한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의 이전 작업과 이후 작업과의 비교를 통해 그 건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1) Scghildt, Goran, Alvar Aalto Master works, Thames & Hudson, 1968, Fleigh Karl, Alvar Aalto 1963-1970, Praeger Publishers, 1971, Porphyrios, D, Sources of Modern Eclecticism Studies on Alvar Aalto, St. Martin Press, 1982, The Harvard Architecture Review, Vol. 5, 1986, Ray, Nicholas, Alvar Aalto, Yale University Press, 2005, Loftin III, Laurence Keith, An Analysis of the Work of Finnish Architect Alvar Aalto, The Edwin Mellen Press, 2005, Eva-Liisa Pelkonen, Alvar Aalto: Architecture, Modernity and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대상 건물의 건축 특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로 진행한다.

우선 대상 건물의 인문적, 물리적 배경에 대한 연구를 중요시 한다. 여기에는 비슷한 시기와 장소에서의 작업도 포함시키는데 이는 연구 대상 건물을 여러 배경과의 상호 관련 하에 고찰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 대상 건물의 개별적이고 단편적 사실보다는 그 배후에 위치하는 원리적이고 전체적이며 구조적 사실을 특성 이해를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 이를 위해 대상 건물의 건축적 의미 즉 이전의 작업에서 받은 영향 및 이후 작업에 끼친 영향과 그 중요성을 고찰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문헌 조사를 통해 연구 대상의 인문적, 물리적 배경을 고찰하고, 도면과 사진 등에 의해 대상 건물을 분석하여 그 전개과정 및 내용을 정리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대상 건물의 형태 및 공간구성에 나타난 건축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리를 찾아봄으로써, 대상 건축물의 의미를 고찰한다.

## 2.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의 건립 배경

### 2.1. 볼프스부르크 시의 도시계획

볼프스부르크 시는 1937년 나치 정부가 새로운 산업도시의 계획 부지로서 독일 북쪽 니더작센 지역을 선정하고 1938년 7월 1일 폴크스바겐 공장을 건설하면서 시작되었다.<sup>2)</sup> 당시 독일 제국의 중심에 위치했던 부지는 기존 산업지대에 인접한 인구가 적은 곳으로서 철도와 북부 아우토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서 교통축을 형성하였고 이것이 새로운 자동차 산업 도시를 유치하는 이유가 되었다. 도시계획을 담당한 페터 콜러(Peter Koller)는 ‘공장은 북부에 건설하고 도시는 남측에 위치시켜 양자를 엄격히 분리하는 계획’을 1단계 도시계획의 중심 내용으로 삼아 90,000명 수용의 도시개발을 수행했다.

<표 1> 볼프스부르크 시의 단계별 도시계획 및 주요 프로젝트 내용<sup>3)</sup>

단계	기간	인구	도시계획 및 주요 프로젝트
1	1938	1,100	도시계획 "Stadt des KdF-Wagens", P. Koller, 1938
	-	-	지역행정 숙박시설A, 1938, Tullio Cianetti Hall, 1938
	1954	38,000	도시계획 "Wolfsburg", Hans Bernhard Reichow, 1948
2	1955	44,000	시청, Titus Taeschner, 1954-1958
	-	-	콩그레스 센터, 1957-1958
	1971	93,000	문화센터, Alvar Aalto, 1958-1962 극장, Hans Scharoun, 1965-1973
3	1972	131,000	플레너타리움, Volker Kersten, Martinoff, Struhk, 1981-1983
	-	-	"Nordkopf" 디자인 현상, Horst Beier, Reinhard Beier, 1987
	1995	128,000	현대미술관 및 시청 증축, Peter Schweger, 1989-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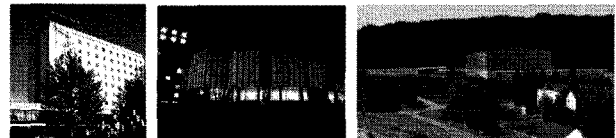
2) 시 선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태용, 볼프스부르크 교회의 건축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8.2, p.95 참조  
3) Nicole Schneider, Wolfsburg. A City changes its appearance: From industrial colony to service and leisure centre, Wolfsburg City, 2001, pp.8-15

도시의 초기 개발은 지역의 랜드마크인 기존의 르네상스 성들을 역사적 참조점으로 삼는 개념으로 시작되었다. 성들을 연결하는 축은 중앙 상업 축인 로테호퍼 가(Rothehofer 이후 Porschestraße)까지 확장되었다.

1942년 이후 자동차 공장이 군수 공장으로서 전환됨에 따라 도시 개발은 중단되었다. 그렇지만 1955-1971년에 걸친 2단계 도시계획에서는 주거단지 외에 지역적 아이덴티티 형성을 위한 문화시설들이 계획되었으며,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도 이때에 건설되었다. 3단계는 1972-1995년까지로서 대도시로의 변모를 중심으로 계획되었으며, 도시생활의 새로운 문화 중심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미술관 건립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 2.2.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의 건립 배경

볼프스부르크 시에 있어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주택부족 해결 이외에 완성되어야 했던 필수 사항 중의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적, 사회적 하부구조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26개의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학교, 운동장,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196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시의 중심인 포르쉐 가로는 백화점, 카페와 상점 등의 상업 건물로만 채워져 있었다.



<그림 1> 볼프스부르크 2단계 도시계획 주요 프로젝트, 좌로부터 볼프스부르크 시청사,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 볼프스부르크 극장

폭스바겐 위원회는 근로자의 산업 근로 환경에 대응하는 도시의 기본적인 문화 하부구조 건설에 기여했는데, 그 첫 번째 문화 프로젝트가 폭스바겐의 재정 지원으로 만들어진 콩그레스 센터, 문화센터 그리고 극장<sup>4)</sup>이었다.

문화센터의 부지는 1958년 완공된 시청이 위치하는 시청광장의 남측으로서 도시의 새로운 중심을 조성하려는 목적이었다. 문화센터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현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알바 알토는 ‘사람들이 만나고 토론하는 모임의 장소’의 개념으로 당선하였다. 이는 문화 센터의 기본적인 기능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지붕 테라스 주변에 모든 실을 배치하여 모임의 중심으로 삼았다. 1962년 문화센터가 완공되자 공공 도서관, 청소년 센터, 성인 교육센터가 자리 잡은 이 건물은 곧 도시의 사회적, 문화적 중심이 되었다. 알토는 문화센터 이후 볼프스부르크 교회, 데트메로데 교회 등 작업을 볼프스부르크에서 수행하였고, 독일에서 브레멘 아

4) 1966년 극장 현상에서는 한스 샤로운이 쾰러 축의 남단에 건물을 길게 늘어 배치하는 안으로 당선하였고, 알토는 2등이었다.

파트, 에센 오페라 하우스 등의 작품을 만들었다.

### 3.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의 건축 특성

#### 3.1. 프로그램 및 배치상의 특성

##### (1) 프로그램 상의 복합성

볼프스부르크 문화 센터는 전형적인 산업도시의 단조로움을 탈피시키기 위해 근로자와 시민의 모임 및 문화행위의 촉진 목적으로 디자인되었다. 따라서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은 이름에 걸맞게 상당히 복합적인데, 크게 보면 도서관 관련시설, 공연 시설, 상업시설, 그리고 교육시설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층 프로그램 중 가로 변에는 연속성과 주변 가로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업시설이 위치한다. 또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인 도서관과 공연시설을 배치하였는데 여러 곳에서 도서관과 회의실의 접근이 가능하다. 청소년 집, 어린이 도서관 출입도 여기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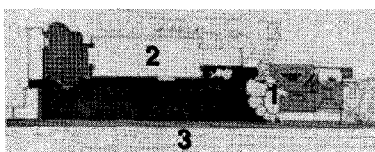
2층에는 주로 집회와 교육시설을 집중시켰는데,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대형 강의실과 옥상 중정을 중심으로 성인 교육을 위한 작은 학교, 아틀리에, 클럽 룸, 미팅룸 등을 배치하여 사교의 장소가 되도록 고려했다.

<표 2>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의 층별 프로그램

층	프로그램 내용
1층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사무실, 음악홀, 상점, 메인홀, 서브홀
2층	대형 강의실, 강의실, 옥상광장, 아틀리에, 미팅 룸, 클럽 룸
지하1층	기계실, 전기실, 창고

##### (2) 컨텍스트의 고려

문화센터는 포르윌 가로에 면하고 있으며 볼프스부르크 시정의 전면 광장 우측에 위치하여 'ㄷ'자형 광장을 형성한다. 1958년에 완공된 시청은 바다 면적이 클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층(8층)이어서 광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대신 광장의 후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알토는 광장 측으로 상당히 파격적인 매스를 배치했다. 이 때 가로를 면한 정형적 형태는 대지와와의 관계를 정리하여 주고, 부정형 매스<sup>5)</sup>는 건물에 독자성을 부여한다.



1. 문화센터
2. 볼프스부르크 시청
3. 포르윌 가로
4. 시청광장

<그림 2>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 배치도

5) 듀아니는 부정형 형태를 '머리(head)'로, 정형의 일반적 형태를 '꼬리(tail)'로 칭한다. Andres Duany, Principles in the architecture of Alvar Aalto, Harvard Architecture Review 5: Precedent and Invention, New York, Rizzoli, 1986, p.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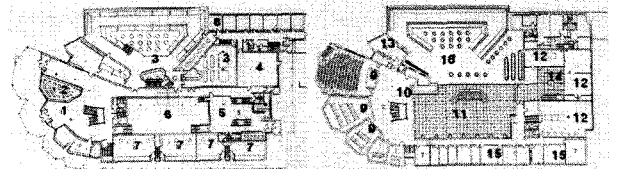
전면도로의 인도에서 건물로 직접 진입하기에는 공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알토는 아케이드를 두어 원활한 동선 흐름을 도모하였고, 광장 측에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각각 1개씩 두었고, 반대편에 2개의 부출입구를 더 만들었다. 전면 도로의 상업적 성격을 고려하여 가로 변에는 상가를 두었다.

#### 3.2. 평면 구성상의 특성

##### (1) 연속적 맞물림

포피리오스는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에서 수많은 기하학적 형태의 조합은 우연히 파생된 듯하다."<sup>6)</sup>고 보고 있으나 문화센터의 평면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른 수평, 수직적 배분과 알토 특유의 구성 원리가 결합된 것이다. 알토는 평면 구성상 정형과 부정형의 2가지 성격을 구분한다.<sup>7)</sup>

문화센터에서는 도서관의 열람실과 부속 행정실, 계단형 대형 강의실과 기타 강의실을 구분하여 열람실과 대형 강의실을 부정형으로 나머지 실을 정형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1층에서는 음악홀, 2층에서는 옥상 광장을 중심으로 'ㄷ'자형과 '┌'자형으로 맞물리도록 결합시켰다.



<그림 3>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 1층, 2층 평면

1. 홀, 2. 보관소, 3. 도서관, 4. 어린이 도서관, 5. 카페, 6. 음악홀, 7. 상점, 8. 사무실, 9. 강의실, 10. 홀, 11. 옥상광장, 12. 미팅룸, 13. 아틀리에, 14. 중정, 15. 사무실, 16. 도서관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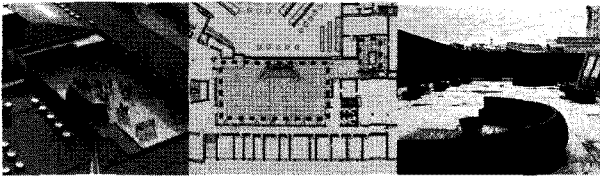
이러한 맞물림의 구성은 부분적으로도 사용되었는데, 성인 교육센터의 5개 강의실은 각각이 비정형의 다각형 형태를 갖지만 그것들의 조합방식은 명확히 부채꼴 패턴으로서 나머지 건물의 직사각형 박스로부터 시작된다.<그림 3 우측> 알토는 건물로 향하는 주 입구를 부채꼴 형태 아래에 위치시켜 이러한 비정형적 형태를 건물의 상징적 정면으로 사용하였다.<sup>8)</sup> 이는 음향과 시각을 고려한 기능적 장점과 상징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나머지 강의실과 기타 실은 가로에 대응하는 '┌'자 형으로 만들었다.

1층에서는 가로에 면하는 부분을 뒤로 후퇴시켜 아케이드를 구성하였다. 아케이드는 광장 측까지 연장되어

6) Demetri Porphyrios, The Other Sensibility of Heteropia, Alvar Aalto: Architectural Monographs 4. Academy Editions, 1978, p.9  
 7) 알토의 '정형/부정형' 형태 구분에 대하여 Frampton(1985)은 'fish/egg', Miller(1977)는 'order/disorder' 그리고 Duany(1986)는 '부정형/정형'을 'head/tail'의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8) Loftin III, Laurence Keith, An Analysis of the Work of Finnish Architect Alvar Aalto, The Edwin Mellen Press, 2005, p.58

주출입구의 캐노피로 확장된다.

2층 옥상 광장은 각종 행사와 모임의 장소로서 사용된다. '口'자형으로서 폐쇄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도서관의 지붕이 높지 않고 중정을 둘러싼 벽이 유리로 구성되어 있어 개방감이 높다.<그림 4> 알토는 중정을 둘러싸는 면 구성에 있어서도 맞물리는 부분을 구별하였는데, 강의실과 교육실 부분은 유리면으로, 도서관의 옥상은 목재 스크린으로, 아틀리에와 클럽 룸 부분은 별도의 입면을 구성하여 각기 다른 성격의 매스를 통해 광장이 구성됨을 보여준다.



<그림 4>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 옥상 중정의 평면과 사진

이러한 옥상 광장의 바닥은 남측 실내로 연속되어 또 다른 내부 중정을 만든다. 내부 중정에는 화로가 위치하여 모임의 장소를 형성하고 화로 상부는 채광과 연기의 배출을 위한 이동식 천창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 주위에 각종 미팅 룸과 아틀리에를 배치하여 모임의 장소가 되도록 했다. 그 결과, “문화센터와 다양한 실들은 화로 피트 주위에 숲속의 공터 주위를 둘러싼 것처럼 배열되어 있어서 마치 풍경을 감상하는 듯하다.”<sup>9)</sup>는 평가를 받는다. 건물 전체는 마치 중앙 광장을 둘러싸는 대학 캠퍼스와 같은 형식으로 디자인되었으며 각 부분은 분리된 볼륨으로 나뉘어져서 단일의 건물을 형성한다. 그렇지만 각 부분은 서로 맞물린 쇠사슬처럼 연결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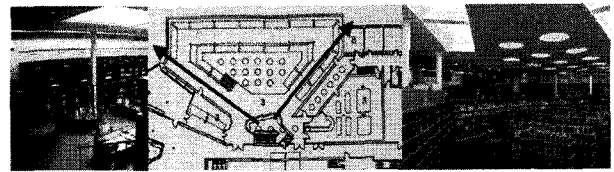
#### (2) 개별 유형의 변화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 부속 도서관은 개방된 열람공간과 부속공간의 분리, 바닥 레벨 차이에 의해 공간감 확보 및 서가의 배경적 사용, 도서관 열람실에는 자신 특유의 원형 천창을 두는 등 비푸리 도서관에서 고안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sup>10)</sup> 그러나 평면 구성과 빛 사용 측면에 있어서는 이전의 정형적 구성에서 벗어난 유형적 전이를 보여준다. 특히 체크 카운터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펼쳐지는 평면은 비푸리나 50년대 도서관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것으로 이후 60년대 도서관 평면유형의 초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평면은 출입자와 열람실에 대한 관리 감독이 편리한 장점을 갖는다.

이렇듯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 도서관은 열람공간의 바닥을 내려 높은 공간감을 부여하는 점, 각 바닥 레벨

에 따라 서가를 벽면과 같이 배치하여 책으로 둘러싸인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하부 레벨의 서가 상부를 상부 레벨의 열람대로 사용하는 수법 등의 구성 요소를 그대로 지속시켰다. 그리고 주, 부속공간의 분리라는 평면 구성의 기본원리는 유지하지만, 열람실의 형태를 삼각형 형태로 변화시킴으로써 기능적 측면에서 유리한 유형의 변화 모습을 보여준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유형의 변화는 대형 강의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비푸리 도서관의 강의홀로 대표되는 이전의 직사각형 형태의 평면에서 음향과 시각적 측면에서 유리한 다각형 평면으로 변화하였으며, 다른 소형 강의실과 균을 이루어 전체적으로 부채꼴 형태를 갖는 것도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에서 처음 나타난 평면의 조합 방식이다. 단면상으로도 계단식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5> 위바스쿨라 대학,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 도서관 내부

### 3.3. 매스 및 입면 구성상의 특성

#### (1) 기능과 환경의 고려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는 건물의 4면이 모두 다른 매스 및 입면 구성을 하고 있어서 “꼬르비제, 미스, 그로피우스의 구성 특성인 추상적이고 정적이며 순수한 형태로 부터는 멀어지고 역동적이고 비결정적인 형태로 관심을 돌린 듯하다.”<sup>11)</sup>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기반은 기능과 주변 환경의 고려에 있다.

평면과 마찬가지로 정형과 부정형 형태의 조합 구성은 매스 및 입면에도 적용되었다. 동일한 높이의 상자형 2층 매스가 정형화된 평면부분에 사용되었고 부정형에 해당 하는 부분에서는 매스의 변화를 주었다. 우선 북측 정면의 독특한 볼륨 구성은 부채꼴이 유리한 강의실을 크기별로 조합하고 크기에 따라 지붕의 높이를 달리함으로써 5개의 독특한 볼륨을 만들어냈다. 또 다른 부정형 매스는 대형 강의실 옆의 매스로서 1층은 오피스 2층은 아틀리에로 사용된다. 아틀리에가 요구하는 높은 천정을 반영하여 지붕층에서 솟아오른 매스를 취한다. 알토는 북측의 부정형 매스에 대응하는 남측 매스를 만들어냈는데, 화로를 중심으로 아틀리에가 둘러싸는 미팅 룸이 그것이다. 아틀리에가 요구하는 높은 천정을 이유로 매스의 높이를 높였으며 실내 중정이 되는 미팅 룸에는 더 높은 천창을 두어 결과적으로 사각형 천창을 갖는 사모 지붕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단조로울 수 있는 옥상

9) Ibid., p.60

10) 정태용, 알토도서관 건축의 유형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10.4, p.35

11) Loftin III, Op. Cit., p.58

광장에는 다양한 크기와 높이를 갖는 천장을 매스 조형 요소로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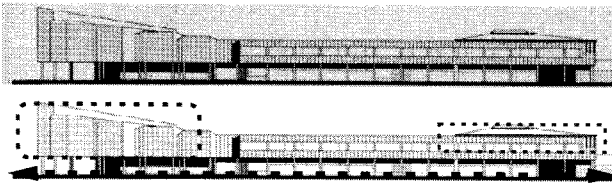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정형적 형태와 구성이 모두 기능적인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음향, 채광은 알토가 즐겨 사용한 기능적 고려사항이었고 문화센터에서는 매스의 형태와 위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 6>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의 북측, 동측, 남측 입면과 매스 구성

## (2) 혼성적 구성

문화센터의 기본적인 매스 구성은 1층을 필로티로 띄우고 납작한 직사각형 기본 매스를 올려놓은 것이다. 일종의 아케이드로 구성한 1층은 사용자의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북, 남, 서측 등 3면에 형성되어 있다. 아케이드는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게 하며 특히 서향을 면하는 상점에 대한 직사광을 막음으로써 1층의 상점에 대한 전용 진입로 일뿐 아니라 문화센터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갖는다.<sup>12)</sup>



<그림 7>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의 서측 입면도

이러한 단순하고 장변의 획일적 구성에 변화를 주는 것은 강의동 균으로 이루어진 북측 매스이다. 1층을 필로티로 처리하여 연속성을 유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질적인 매스의 형태와 크기로 강한 대조를 유발한다. 또한 남측에 위치한 아틀리에 균을 위한 지붕은 북측 매스에 대한 일종의 대응매스로서 동적 균형을 만들어낸다.

가장 큰 도로와 면하는 서측 입면은 강한 대조를 보여준다. 서측 입면의 우측 부분은 마치 빌라 사보이를 연상시키듯 백색의 가장 단순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우측은 매스뿐만 아니라 백색 대리석에 회색 대리석 밴드<sup>13)</sup>의 재질 변화 및 검은 색 대리석의 세로 분절을 통하여 강렬한 대조를 보여준다.<sup>14)</sup>

동측 입면은 도서관이 위치하는 부분으로 서가 및 열람 공간을 구성하는 솔리드 면과 사무실이 위치하는 편

12) 던스터는 “건물의 가장 큰 공공적 장점은 모든 다수의 공공 입구를 연결하는 아케이드에 있다.”고 평가한다. David Dunster, ed. Architectural Monographs 4: Alvar Aalto.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4, p.90

13) 카라라 산 백색과 청색 대리석을 파미르 시엔타와 결합했다.

14) Loftin III, Op.Cit., p.58

칭 윈도우의 면이 대조를 이룬다, 또한 셋백된 강의동 부분 역시 변화요소로 작용한다. 인상적인 강의동 매스가 연속되어 구성되는 북측 입면은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에서 가장 역동적인 부분이다. 인접한 독립적인 스튜디오 매스와 솔리드한 도서관 매스는 동측으로의 입면전환을 보여준다. 남측입면은 도서관 사무동과 스튜디오 매스의 연결로 이루어진다. 특히 남측면은 알토 특유의 목재 수직 루버를 사용하여 구성적인 입면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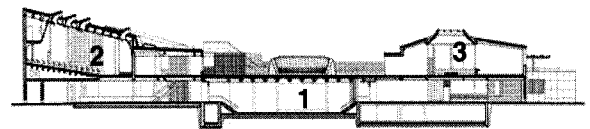
이렇듯, 건물의 각 면은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서리에서 다음 면의 모습이 병치되어 연결되는 혼성적 구성을 보여주며 이는 평면의 맞물린 구성과 관계가 있다.

## 3.4. 공간 구성상의 특성

### (1) 다양한 높이의 변화

알토는 문화센터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변화감 있는 공간을 도입하였는데, 우선 단면 상에 다양한 높이 변화를 주었다. 1층 도서관에서는 열람실 바닥 층의 높이를 반층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여 공간 변화를 꾀하였으며 이는 방사형 평면과 결합되어 역동적이고 방향성있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특히 서가와 선형으로 구성된 천창이 더하여져서 공간에 변화를 제공한다. 음악홀 역시 바닥을 반층 낮춤으로써 홀의 기능에 적합한 높이를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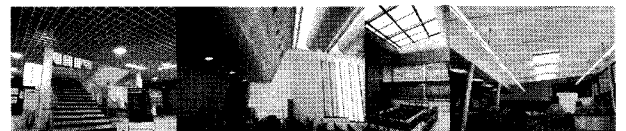
2층에서는 다양한 천정 높이의 변화와 내 외부 공간구성을 통하여 변화를 추구하였다. 5개의 강의실 지붕을 경사형으로 구성하여 음향상의 장점을 취하였고, 천창을 설치하여 자연광의 도입을 꾀하였다.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빛의 효과와 더불어 역동적인 공간이 형성되었다.<그림 9, 12>



<그림 8>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 단면도

1. 음악홀, 2. 강의홀, 3. 내부중정

남측부분에는 아틀리에를 실내 중정을 중심으로 둘러싸도록 구성하였다. 그 결과 자연광과 높은 공간을 갖는 중정의 공간감과 경사천정을 갖는 아틀리에의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이외에도 격자형 천정이 인상적인 1층 홀과 계단으로 연결되는 수직 개구부 및 강의홀 후면의 곡면부에서 알토 특유의 역동적 공간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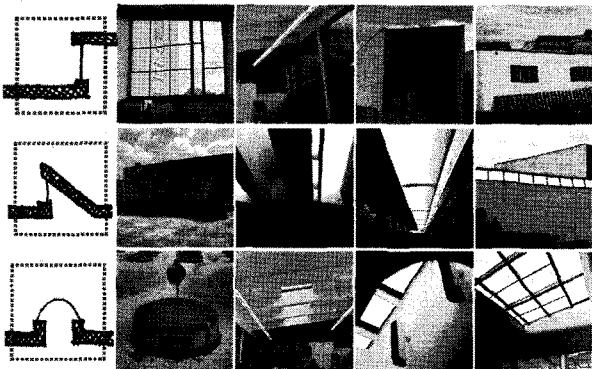


<그림 9> 공간구성 변화, 로비, 대형 강의실, 스튜디오 중정 및 스튜디오

## (2) 빛에 의한 공간감 제고

알토는 문화센터에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빛을 시켰는데, 이는 복합적인 프로그램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 즉 다양한 공간의 성격과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기능적 사항에 대해 적합한 방식의 채광방식을 채택하였으므로 단일 유형의 건물에서보다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 고창, 원형 천창, 사각형 천창, 띠 천창, 이형 천창 등 채광장치들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장치들의 성격에 따라 각각의 공간은 형상과 밝기 측면에서 다양한 공간감을 제공한다.

우선 도서관의 원형 천창은 방향성이 없거나 정형적인 반면, 벽을 따라 설치된 띠형 천창은 사선의 방향감과 역동성을 제공한다.<그림 5 우측사진> 강의실에는 지붕의 경사에 반대되도록 납측으로 띠형 천창을 두었는데, 납쪽의 빛을 반사시켜 간접광을 강의실로 확산시키는 기능 외에 천정에 리듬감을 제공한다.<그림 12 사진> 아틀리에는 각각의 위치를 고려하여 각기 다른 채광방식을 채용했는데, 복층의 독립된 아틀리에는 기존 층고의 2배에 달하는 천정까지 이어지는 커다란 측고창을 설치했으며,<그림 10 상단 2번째 사진> 납측의 아틀리에는 각 위치에 따라 사각 천창, 원형 천창, 고창을 적절히 배치하여 기능 충족과 아울러 변화감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특히, 아틀리에 중앙에 설치된 실내 중정은 층고를 높이고 상부에 천창을 설치하여 '모임의 장소'라는 공간의 상징성을 강조하였다.<그림 9>



<그림 10> 다양한 채광장치에 의한 빛과 공간효과: 좌측 상단부터 고창, 틈날 천창, 천창 유형과 문화센터의 사례

## 4.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의 의미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가 갖는 건축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문화센터에 포함된 각 건축 유형의 개별적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각 건축 유형의 조합 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문화센터 이전 및 이후의 작업과 비교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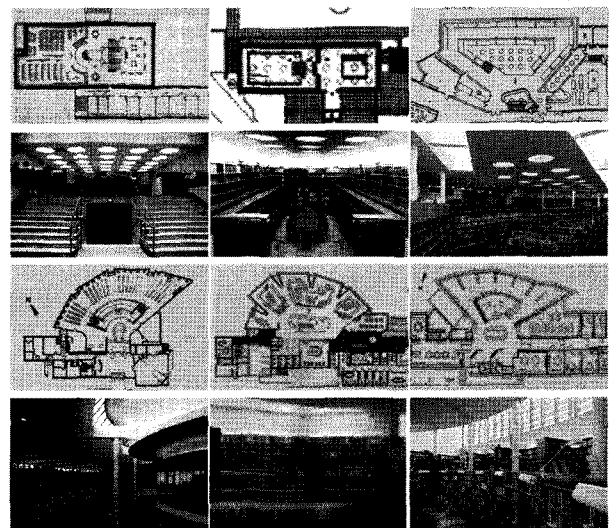
## 4.1. 개별 유형의 전환적 의미

### (1) 도서관

문화센터의 도서관은 독립건물이 아니라 부속 시설로 계획되어 있지만, 그 유형학적 의미는 매우 크다.

첫 번째,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의 도서관은 비푸리 도서관이후 본격적인 도서관으로서, 이후 알토의 대표적 도서관인 세이나요키, 로바니에미, 마운트 엔젤로 이어지는 가교역할을 한다. 물론, 핀란드 연금협회 부속 도서관(1948), 유바스쿨라 교육대학의 부속 도서관(1953) 등의 작업이 있었지만, 이들은 비푸리 도서관 유형의 '반복' 성격이 강했다. 즉, 직사각형 평면을 그대로 유지했고, 반 층 낮게 형성한 열람실과 벽면을 이용한 서가의 설치, 서가 상부의 독서대의 활용과 원형 천창 군으로 이루어진 천정 등 비푸리 도서관의 특징이 그대로 적용되었다.<그림 11 상부 중앙>

이에 반하여,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 도서관은 기존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유형의 변형' 성격을 갖는다. 우선 비푸리 도서관의 주요 특성은 유지한 채 또 다른 시도들이 이루어졌는데, 직사각형의 평면을 탈피하여 사선이 도입되어 감독의 편리성과 아울러 공간의 역동적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능의 성격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사용되었던 원형 천창 대신, 각 영역 기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천창을 사용함으로써 도서관의 각 부분에 맞는 빛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선형의 천창은 간접광을 유입시키는 장점을 갖는 동시에 공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문화센터에서는 열람실에 원형 천창과 띠형 천창이 같이 사용되었으나, 이후 도서관의 열람실에서는 원형 천창을 사용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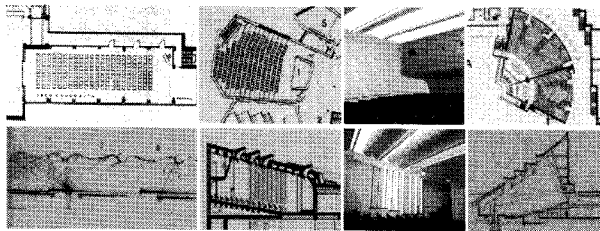
<그림 11> 평면과 내부공간의 변화: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비푸리, 핀란드 국민연금협회,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 세이나요키, 로바니에미, 마운트엔젤 수도원 도서관

### (2) 강의동

소규모 강의실의 경우는 직사각형 유형을 후기에도 사

용했지만 중대형 강의실의 경우는 문화센터의 강의실을 시작으로 초기 직교 좌표의 엄격한 형식에서, 부채꼴 및 곡면 사용의 중간단계 모습으로 변화한다.

비푸리 도서관에서 나타난 긴 직사각형 강의실은 소리의 전달을 위한 파동형 곡면 천정으로 유명하지만, 이후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의 강의홀에서는 평단면 모두에서 소리를 고려한 형상으로 전환되고 특히 빛을 유입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강의홀은 오타니에미 대학(현 헬싱키 공대) 강의동에서 알토 특유의 부채꼴 평면과 합쳐져서 정점에 이르게 된다.<그림 12 우측>



<그림 12> 강의홀 변화과정, 비푸리 도서관,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 오타니에미 공대 강의동의 평면과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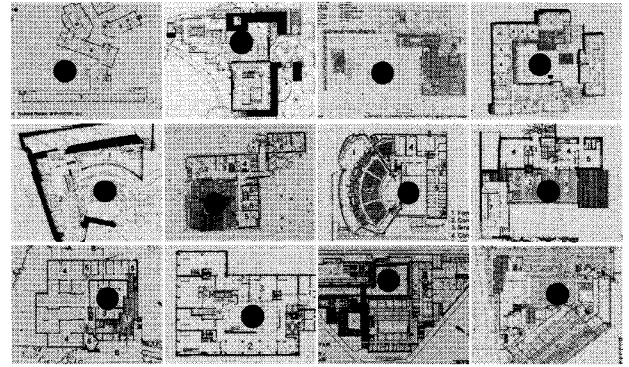
## 4.2. 공간 조합방식의 의미

### (1) 중정 중심의 공간구성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는 알토가 수행한 복합 프로그램 건축의 초기작품으로서 그동안 수행했던 작업이 개선된 형태로 나타나거나 혹은 이후 작업의 원형적 성격을 갖는 형상들이 나타난다. 그 중 건축적 의미가 있는 것은 복합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이다.

단일 건물에서 주로 사용된 부정형과 정형 공간의 조합이 문화센터에서는 입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결합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서, 옥상광장, 실내 중정 및 홀 등이 이에 해당하는 공간들이다. 예를 들어,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의 1층에서는 음악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2층에서는 옥상 중정과 스튜디오 내 실내중정이 결합의 중심공간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초기 작품인 파이미오 요양원부터 나타난 것으로서, 규모와 건축 유형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대규모 오피스 건물에까지 사용되었다.<그림 13 하단 우측 국민연금협회, 라피아탈로 사옥>

결과적으로 ‘ㄷ’, ‘ㄷ’, ‘ㄷ’자형을 이루는 이러한 공간의 결합 방식은 핀란드 칼렐리아 지역의 농가 구성 및 유럽 건축기행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sup>15)</sup>되지만 기능적으로도 채광과 환기측면에서 효과적이다. 그리고 구성의 중심이 되는 ‘비워져 있는 공간’들은 회합, 휴식 등 다양한 목적을 수행한다. 이러한 성격은 알토의 후기 건물에서 점차 강화되어 나타난다.



<그림 13> 알토의 중정형 구성방식: ‘ㄷ’자 순서로 파이미오(1933), 핀란드 파빌리온(1937), 마이레아(1937), 세아나찰로 타운홀(1949), 자택, 문화의집(1952), 무리찰로(1952), 아틀리에(1954), 알보르그 박물관(1959), 국민연금(1952), 라피아탈로(1969), 괄호안의 숫자는 설계연도임

### (2) 장소의 형성

중정, 아트리움, 홀 등을 이용한 알토의 공간 구성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여러 공간을 조합하는 방식을 넘어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향유하며 기억할 수 있는 일종의 ‘장소’를 만들어낸 것에 있다.<sup>16)</sup> 알토는 공공건물의 경우 건물 자체가 장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의 경우 “이 건물의 관람자와 사용자는 개인적 필요의 관점에서 공간을 발견하고 사용하면 서, 인공으로 조성된 풍경의 탐험자가 된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전환인데 사물에서 사람으로, 추상적인 것에서 위치, 관찰, 순간으로의 변화이며, 최종적으로는 ‘장소’로의 확실한 변화이다.”<sup>17)</sup> 알토는 “사회에서 공공건물의 위치는 인간 신체의 주요 장기의 역할을 할 만큼 중요해져야 한다.”<sup>18)</sup>고 제안했으며, 또한 그는 “거리의 사람들” 즉 실제 건물 사용자가 항상 계획의 측정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sup>19)</sup>하여 건축가의 임무는 항상 사회의 봉사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는 공공건물의 임무에 대한 알토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질적인 이 건물의 중심은 모임과 사고 활동의 장소로 사용되는 옥상 광장이다.<sup>20)</sup> 비록 이 공간이 건물 내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너무 개방되어 있어서 도리어 익명적 성격을 갖는 시청 광장과는 다른 좀 더 구체적인 장소의 역할을 보여준다.

16) ‘장소’는 정의와 사용이 어려운 용어이지만 “내부자의 관점에서는 장소의 설명은 개인적이고 살아온 경험의 부분인 특별한 지평에 도달할 수 있는 범위내의 삶의 지속적인 과정에 관련된다.” Loftin III, Op.Cit., p.58

17) Ibid., p.58

18) Louna Lahti, Aalto, TASCHEN, 2004, p.14

19) “지난 10년간 근대 건축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기능주의적이었지만, 참으로 기능주의적인 건축은 인간의 관점에서 기능주의적이어야 한다.” Kiyoshi Higuchi, Alvar Aalto-His Words and Architecture, A+U 8304, p.31

20) David Dunster, ed. Architectural Monographs 4: Alvar Aalto.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4, p.90

15) 伊藤 大介, アルトトヒランド, 알바 알토, 김인산 옮김, 르네상스, 2005, pp.182-190



### 4.3. 알토의 전체 작업 경력에서의 의미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는 알토의 전체 작업경력에서 차지하는 의미도 크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알토에게 있어서 2차 세계 대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산업 재건 혹은 주거를 제외하고는 문화관련 작업은 많지 않았다. 더욱이 알토는 1943년 핀란드 건축가 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1958년까지 회장직을 수행<sup>21)</sup>하였는데, 건축가 협회는 핀란드 정부의 정책에 공식적으로 반대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 프로젝트를 맡기가 어려웠다. 그 결과 핀란드에서 알토의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은 195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sup>22)</sup>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가 알토의 건축 작업 경력에서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는 같은 문화권인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이루어진 본격적인 작업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후 작업에 필요한 많은 실험을 할 수 있었으며, 독일에서의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화센터 이후 알토는 볼프스부르크 교회와 교구센터, 데트메로데 교구센터 및 에센 오페라 하우스로 연결되는 일련의 작업을 수행했다. 1960년대 부터는 핀란드에서 충분한 작업 기회가 생기게 되었으므로, 1950년대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가 갖는 작업 경력 상의 의미는 높다고 하겠다. 특히 이전에 큰 기회가 없었던 문화시설을 하나의 건물에서 여러 개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이후의 작업에 대한 유형적 연속성의 기초를 쌓을 수 있었던 것도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가 갖는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라 하겠다.

<표 3> 1950년대까지 알토의 문화시설 작업

건물명	설계-준공	수주방법	장소
핀란드 극장	1927-1929	현상설계	투르쿠, 핀란드
비푸리 도서관	1927-1935	현상설계 당선	비푸리, 핀란드
레발 미술관	1934	현상설계 계획안	레발, 에스토니아
헬싱키 문화의 집	1955-1958	지명설계	헬싱키, 핀란드
베니스 핀란드관	1956	지명설계	베니스, 이태리
키루나 타운 홀	1958	현상설계 당선	키루나, 스웨덴
알보르그 박물관	1958	현상설계 당선	알보르그, 덴마크
바그다드 박물관	1958	현상설계 계획안	바그다드, 이라크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	1958-1963	현상설계 당선	볼프스부르크, 독일
에센 오페라극장	1959-1976	현상설계 당선	에센, 독일
핀란드 중앙박물관	1959-1962	지명설계	위베스쿨러, 핀란드

## 5. 결론

이상의 연구에서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의 건축적 특성과 의미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는 알토가 수행했던 작업

중 대규모 복합 문화시설의 효시로서, 1950년대 말의 시기별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작업에 영향을 끼친 많은 시도들이 행하여진 작품이다.

둘째,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에는 정형과 부정형의 조합을 보여주는 알토의 디자인 원리가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기존 유형을 변형하고 새로운 유형을 삽입하여 새로운 전체를 만들어냈다.

셋째,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는 프로그램의 복합적 성격을 기반으로 평면상의 맞물림 구성, 매스와 입면의 혼성 구성, 공간의 높이 변화와 빛을 이용한 공간효과와 다양한 매스변화와 행위를 유발하는 공간 조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넷째, 문화센터의 개별 유형 중, 도서관 유형은 비푸리 도서관의 기본 유형에 대한 획기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이후 작업의 특성이 되는 부채꼴 평면과 빛 유입 장치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또한 강의실 유형 역시 직사각형의 형태를 탈피한 부채꼴과 계단식 강의실의 평단면 유형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졌다.

다섯째, 문화센터는 중정, 아트리움, 홀을 이용한 다양한 클러스터링 기법을 통해 전체를 구성하였는데, 커뮤니티 기능을 수행하는 비어진 중심 공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장소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렇듯,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는 유형의 조합과 구성의 변화를 통하여 이후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축적 의의를 갖고 있다. 다만, 문화센터 이후 복합 프로그램에 대한 알토의 구체적인 접근 방법과 의미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1. Points of Contact, Alvar Aalto Museum, 1994
2. Architectural Monographs 4 Alvar Aalto., St. Martin, 1978
3. A+U 8302, Alvar Aalto, 1983
4. Duany, Andres, Principles in the architecture of Alvar Aalto, Harvard Architecture Review 5, 1986
5. Fleigh Karl, Alvar Aalto, Studio paperback, 1991
6. Frampton, Kenneth, Modern Architecture, T&H, 1985
7. Lahti, Louna, Aalto, TASCHEN, 2004
8. Loftin III, Laurence Keith, An Analysis of the Work of Finnish Architect Alvar Aalto, The Edwin Mellen Press, 2005
9. Miller, W., A Thematic Anaysis of Aalto's Architecture, A+U, 1977
10. Porphyrios, D, Sources of Modern Eclecticism Studies on Alvar Aalto, St. Martin Press, 1982
11. Ray, Nicholas, Alvar Aalto, Yale University Press, 2005
12. Scghildt, Goran, Alvar Aalto Master works, Thames& Hudson, 1968
13. Schneider, Nicole, Wolfsburg. A City changes its appearance: From industrial colony to service and leisure centre, Wolfsburg City, 2001
14. 伊藤 大介, 알트토흐란드, 알바 알토, 김인산 옮김, 르네상스, 2005
15. 정태용, 볼프스부르크 교회의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6. 8
16. 정태용, 알토도서관 건축의 유형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10.4

21) Louna Lahti, Aalto, TASCHEN, 2004, p.12

22) 예를 들어 세이나칼로 타운 홀의 현상 설계(1949)의 경우는 가명을 사용하여 당선했고, 헬싱키 문화의 집(1955)는 핀란드 공산당의 의뢰에 의해 이루어진 작업이었다.

[논문접수 : 2011. 02. 28]

[1차 심사 : 2011. 03. 18]

[게재확정 : 2011. 04. 08]